

39.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1-7상)